

전세보증반환보증료 지원대상 확대

군산시,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군산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범위를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등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이 청년의 경우 5000만원, 일반가구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군산시는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후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단, 외국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납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군산시 홈페이지 시청소식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안정수 주택행정과장은 "보증료 지원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 만큼 전세 피해예방과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 "공영장려 지원방안 마련 절실"

무연고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장례를 치를 자금이 없어도 최소한의 존엄함을 지킬 수 있도록 공영장려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여)은 5일 익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인 가족 체제와 독거노인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매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장례 의식도 없이 고인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현재 무연고자 장례 지원비는 기초수급자 장제비인 80만원 수준이어서 최소한의 장례 의식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영장려 지원 조례를 통해 공영장려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공영장려는 단순히 시신처리를 넘어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애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물론 이로 인해 사회 전반의 현실을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며 공영장려 서비스 적극 추진을 당부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저소득층 희망저축 계좌·신규 가입자 모집

군산시가 이달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저축계좌·신규 가입자 모집을 시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자선형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등이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 정액금을 매칭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희망저축계좌' 근로자가 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 후 탈수급한다면 근로자는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월3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정액금을 포함,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3월 4일~15일 1차 모집을 시작으로 2차 4월 1일~12일, 3차 6월 3일~14일, 4차 8월 1일~13일, 5차 10월 1일~14일까지 총 5회로 진행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산=김판근 기자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잡아라"... 익산시, 유치 활동 나서

수도권 도시민 35명 대상, 귀농·귀촌 상담·교육 전국 단위 박람회 3회, 귀농·귀촌 체험교육 6회 운영

익산시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섰다. 시는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전북특

별자치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서울사무소에서 2024 익산시 귀농·귀촌 도시민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수도권 거주자 35명을 대상으로, 익산시 지원정책 설명과 함께 김훈 (사)익산시귀농귀촌협의회 회장, 김대연 익산시 귀농귀촌 멘토연구회 회장의 사례발표 등이 진행된다.

또한 귀농·귀촌 설계 및 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도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농촌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도시민들이 귀촌하기에 최적지"라며 "귀농·귀촌인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책 홍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도시민 유치를 위해 전국 단위 박람회 3회, 도시민 상담교육 2회, 농촌 현장에서 진행되는 익산시 귀농·귀촌 체험교육 6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350여명에 걸쳐 1:1 정책상담을 진행하고 맞춤형 상담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가 7일부터 8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서울사무소에서 '2024 익산시 귀농·귀촌 도시민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한다.

익산시,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직장적응 지원

익산시가 미취업 청년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고 입사 초기 청년의 직장 적응을 지원한다.

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신규 공모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교육·유지 및 직장적응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은 '익산 청년 업(UP)'과 '익산 직장 업(UP)' 두 가지로 총 3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익산 청년 업(UP)은 월 20시간 진행되며,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경력 설계, 퍼스널 브랜딩, 취업 프로그램,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

익산 직장 업(UP)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한 직장문화 개선을 지원한다. 지역기업 CEO와 인사 담당자,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 해결을 위해 청년 친화적 직문화 교육, 업무 능력 향상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진로를 찾고 기업과 청년 간의 갈등을 최소화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이를 통해 청년 구직 단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민관 합동 정비

익산시가 개학을 맞아 초등학교 주변 등하굣길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에 나선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사)전북 옥외광고협회 익산시지부, 익산시민경찰연합회와 민관합동 정비반을 구성해 학교 주변 현수막, 노후 간판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한다.



으로 정비해 등하굣길 위험 요인을 제거했다. 아울러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장소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상습적 설치지는 계도를 강화하고 해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병예감시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초등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사랑장학재단 '다다익산 장학생' 선발... 15일까지 접수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이 지역 다자녀 가정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격적인 장학사업 추진에 나섰다.

익산사랑장학재단은 다자녀가정 교육비 부담 경감과 익산시 인구 정책 동참을 위해 신설한 '다다익산 장학생' 선발 접수를 오는 15일까지 진행한다.

다다익산 장학금은 5자녀 이상 가구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을 위한 실질적인 도

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5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이 교육비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대상은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가 5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이며,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학기당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준비 서류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익산사랑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아이가 태어나

면 대학 졸업까지 걱정 없이 양육할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익산 조성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정주여건개선 및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한 장학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사랑장학재단은 익산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발맞춰 지역 인재 발굴·육성 및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육훈을 주는 곳이다.

